

근로시간 단축에... 전남 '버스기사 대란' 우려

7월부터 연장근로 제한...37개업체 운전자 200여명 부족

단기간 충원 어려워 배차·막차 시간 조정 등 차질 가능성도

전남지역 노선버스가 운전자 부족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을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 등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최악의 경우 배차 시간이 늘어나거나 막차 시간을 단축하는 등 파행 운영 가능성도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다. <관련기사 14면>

18일 고용노동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노선버스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특례 업종'에서 제외돼 주당 12시간을 넘기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됐다. 노선버스의 경우 기존에

는 '특례 업종'에 포함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주당 근로시간(6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다. 전남 노선버스는 목포, 광양 등 5개 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군지역의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등이다.

버스업계는 1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적용되면 근무 형태를 격일제나 복격일제에서 1일 2교대로 바꾸더라도 전남지역 37개 버스업체에서 200여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격일제의 경우 하루 평균 17~18시간을 근무하며 법정 근로시간 8시간에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로 채우는 방식이다. 복격일제는 이를 근무하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할 수 없어 근무 형태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나마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채용을 위해서는 최소 15개월이 필요한데다, 낮은 임금,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추가 채용도 쉽지 않다. 버스운전자로 채용되려면 대면형 취득(7일 이상)→운전경력(1년 이상)→버스운전자직 취득(7일 이상)→업체 채용→실전교육·훈련(3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이 때문에 19일부터 이틀간 버스업체 대표·운영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무형태 유연화 등 맞춤형 진단 및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업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종업원 규모별로 각각 2020년 1월 1일(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 1일(5~49인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할 경우 모두 1129명을 충원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지역 시내·농어촌버스 46개 업체 중 차량 50대 미만인 업체가 67%인 31개에 달하는 등 여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인건비 상승(2013년 대비 24% 인상), 유가인상(2016년 대비 21.4%) 등이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인원 확충이 어렵다는 게 버스업체 하소연이다.

광주도 현재도 중형버스 운전자가 20여명 부족한 상황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휴일근로 형태로 근무형태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60여명의 운전자를 채용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안 오피스텔 17층서 20대 남녀 추락사

무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녀가 잇따라 추락해 숨졌다.

17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경 무안군 한 오피스텔 17층에서 A(여·20)씨가 45m 아래 1층 화단에 떨어진 뒤 남자 친구인 B(22)씨도 추락했다.

경찰은 A씨 부모와 함께 있던 지인이 "오피스텔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다"고 신고하자 곧바로 출동해 1층 화단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부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경찰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B씨도 17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와 B씨는 만난 지 7개월된 사이로 오피스텔에서 동거해온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오피스텔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가해자 재판 부실" 염전 노예 피해자 국가상대 소송 패소

염전 주인(염주)의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로 추격을 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이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법관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았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 측은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주 A씨가 2014년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청 1심 판결에서 징역 2

년에 징역유예 4년을 선고받자 재판이 부실했다며 지난해 10월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가해 염주에 대한 1심 형사재판부에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양형에 반영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실제로 A씨의 형량 산정에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잡혀있다. A씨의 변호인이 선고 사유 전 재판부에 제출한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그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이 처벌불원서가 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A씨의 형량은 1심 결론과 달라지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물벼락 갑질' 피해 광고대행사 압수수색

경찰, 당시 회의 녹음·문자 내용 등 확인

조현민(35·여)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을 수사하는 경찰이 18일 광고대행사인 A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마포구의 A 업체 사무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확보를 위해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회의 녹음 내용과 회의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무는 지난해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 업체의 광고담당 B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알려진 '유리컵 갑질' 직전에 벌어진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지는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유리잔을 던졌는지, 책상 위에서 밀쳤는지를 놓고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유리잔을 던진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경찰은 지난 17일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꽃가루 예방 가지치기 광주시 북구 공무원들이 18일 크레인을 동원해 도심 가로수를 가지치기하고 있다. 불철가로수 꽃가루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고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주민 민원에 따른 것이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북어요리 먹고 마비 증상

50대여 긴급이송 회복중

완도해양경찰은 "지난 17일 완도군 노화도에서 북어요리를 먹은 뒤 마비증상을 보인 50대 여성을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10분께 조모(여·54·노화도)씨가 집에서 잠복을 요리해 먹은 후 손과 허벅지에 마비증세가 오고 온몸에 저림 현상이 나타나 노화보건소를 방문했다. /원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노화보건소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요청을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통해 조씨를 해남읍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씨는 해독제 처방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지난 2월9일께 노화도에 거주하는 김모(68)씨도 북어 중독 증세를 보여 해남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생명을 건지기도 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지식 없이 북어를 먹다 중독되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사조직 동원 불법 선거운동

전 지자체장 예비후보 구속

사조직을 가동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A 전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가 구속됐다.

18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전 예비후보를 구속했다.

A 전 예비후보는 사조직의 각종 식사 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 전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A 전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오전 선관위에 예비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목포=김병민기자 dss6116@

아들 집 착각 60대 여성, 문 열려며 엉뚱한 집 방충망 파손

○...다른 사람의 집을 아들 집으로 착각한 60대 여성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며 방충망과 유리창을 망가뜨려 경찰서행.

○...1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64)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남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문을 열라"며 행패를 부리고 우산을 휘

둘러 방충망에 구멍을 내는 등 1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바로 앞 등고에 살고 있는 아들의 집을 착각해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씨는 경찰에서 "전날 크게 다툰 아들이 일부러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 같아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9402	1	광산구 소촌동 286-1 모아드림타운아파트 108동 11층 1107호 36.3544㎡	아파트	82,000,000	2017타경67057[총 82,000,000원]
2017타경 10464	1	서구 금호동 787 중흥아파트 107동 19층 1912호 59.46㎡	아파트	170,000,000	
2017타경 10587	1	광산구 용남동 387-22 삼성아파트 101동 9층 1902호 84.92㎡	아파트	171,000,000	
2017타경 12156	1	북구 일곡동 850-4 일곡2차정수아파트 203동 3층 303호 48.45㎡	아파트	89,000,000	
	2	북구 설죽로555, 202동 2층 212호 [일곡동, 일곡2차정수아파트] 48.45㎡	아파트	100,000,000	
	3	동소555, 202동 5층 510호 [일곡동, 일곡2차정수아파트] 48.45㎡	아파트	102,000,000	
	4	광산구 소촌동 286-1 모아드림타운아파트 106동 8층 801호 26.9712㎡	아파트	63,000,000	
	5	광산구 팔계동 763-6 호반아파트 203동 1층 101호 59.82㎡	아파트	115,000,000	
	6	광산구 소촌동 286-1 모아드림타운아파트 106동 2층 201호 26.9712㎡	아파트	62,000,000	
	7	동소 286-1 모아드림타운아파트 106동 3층 301호 26.9712㎡	아파트	63,000,000	
2017타경 13111	1	서구 화정동 366-19 금호타운 304동 3층 301호 59.88㎡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상 지하층651.68㎡이나 건축물대장상 651.3㎡, 2017.10.10기준관리비283,520원미납]	아파트	129,000,000	
2017타경 13302	1	남구 봉선동 128 203동 14층 1402호 84.96㎡	아파트	243,000,000	
2017타경 8270	1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590-4 110㎡	대	110,564,720	일괄매각, 제시외 장성군 황룡면 신월산2길 7-1, 1.2층각91.3㎡ 제시외 창고 등 29㎡ [물건번호1: 제시외 건물일부인접지 [월평리136-21, 136-28, 590-54] 소재, 건물일부인접지 [월평리590-75] 소재, 법정지상권설립여지있음]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11375	1	나주시 금성동 31-6 324㎡ 동소 31-6 47.60㎡ [현상59.4㎡] 제시외 창고 등 12.0㎡ [제외외건물포함] [물건번호1: 제시외건물일부인접지소재], 토지와인접지의지적경계불명, 지적정계측량요요]	대	96,106,800	일괄매각, 공가상대, 지적도상행지 및인접지주변의관수로인접인접로차단]
2017타경 8386	1	광산구 송촌동 273-3 456㎡ [수목포함, 나대]	대	169,680,000	제외외건물매각제외, 지적도상행지
2017타경 11757	1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산52-1 4263㎡ [김향림]	임야	16,443,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에한함
2017타경 13777	2	담양군 수북면 나산리 255-4 4097㎡ [정대철지분4분의1전부, 제시외건물매각제외, 김나우약100여구주매각제외, 현상전및건부지]	임야	119,843,1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에한함, 2017타경67873[총복]
2017타경 65686	1	북구 연제동 173-1 1012㎡ [이치혜지분1/2]	전	30,36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에한함
2017타경 12736	1	동구 동계천로105, 2층 203호 23.68㎡	근린시설	30,800,000	
2017타경 17243	1	사용본거지:팔택시 남산동25번길 62-2 디동 비이호 [신강동, 오피리하우스] 등복본호:32구3172 차명:오해비 연식:2013	자동차	24,000,000	본관장소:광주광역시서구대갈224현 대주차장
2018타경 61001	1	사용본거지:나주시 빛가람동118 빛가람중흥에스클래스센터빌1차 101동 1105호 등복번호:25노2548 차명:오피러스 연식:2009	자동차	7,000,000	본관:광주광역시서구상안길314-1699수원센터이너하우스
2017타경 11238	1	남구 구동 67-18 135.5㎡ 동소 67-18 1층66.3㎡ 2층58.25㎡ 제시외 다가구주택 75.01㎡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이나건축물대장상2014.12.17다가구주택, 1층다가구주택57.65㎡ 불충족, 2층다가구주택17.36㎡ 충족하는것으로변경]	대	210,787,66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7타경 13371	1	서구 화정동 755-86 350.3㎡	도로	80,569,000	
2017타경 13777	1	담양군 수북면 나산리 245 452㎡ 담양군 수북면 하촌길 57-11 98.45㎡ [물건번호1: 정대철지분2/17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에한함]	대	12,862,400	일괄매각, 지분매각, 제시외건물제외, 2017타경67873[총복]

● 공고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농지법상 농지특허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기대수권인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특허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 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법성 변경으로 인한 관공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2. 공유자가 민원집행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신청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청금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8. 6. 3. [목] 10:00
3. 매각장소: [일] : 2018. 5. 10.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방법원 입찰방방
5. 매각방법
1. 입찰방방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방방에 넣어 입찰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용기과 보증금의 지기일부 또는 현금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보증금)를 제출한 문서(입찰 보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입찰방방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의 기일 및 입찰보증금의 반에 동등하거나 신봉준도 동등한 기일과 오시기를 가져와, 당일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을 청탁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방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유자에게 농지특허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기대수권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특허자격증명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여의에 농지특허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6. 공고 및 물건번호 매각기일 전에 관공명사에 취외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7. 선의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공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회방법을 개시하는 공고나 방방에 비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합니다.
9. 매각기일 당일에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c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공민인의 권리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즉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명령이 상환이나 취소, 대법원판정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항상는 판결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매각기일 및 공고나 비치는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4. 1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민우